

오순절 후 일곱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7<sup>TH</sup>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2년 7월 24일 오전 10시

인도: 김강석 장로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195 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통일17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30 번 시편 67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강석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요한복음(John) 14:25-27</b>	조문희 집사
찬 양 Anthem	“드러지게 하소서”	찬양대
설 교 Sermon	<b>“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The Counselor, The Holy Spirit Is With Us)</b>	손 순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191 장 “내가 매일 기쁘게” (통일427)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손 순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더 이상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졌고,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을 앞세우며 어리석게 행동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거짓됨과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는 자”로 여기고,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후 5:15, 롬 6:11)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개역개정 **요14:26**)

“But the Counselo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will remind you of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 (NIV **John 14:2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7/24 (주일)	7/25 (월)	7/26 (화)	7/27 (수)	7/28 (목)	7/29 (금)	7/30 (토)
	삿7	삿8	삿9	삿10:1-11:11	삿11:12-40	삿12	삿13
본문	행11	행12	행13	행14	행15	행16	행17
	렘20	렘21	렘22	렘23	렘24	렘25	렘26
	막6	막7	막8	막9	막10	막11	막12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7/27수 오후730)	“섬기러 오신 예수님”(마 20:17-28) - 김강석 장로
토요새벽기도회(7/30토 오전630)	“하나님의 은혜”(시23) - 윤영록 장로

지난 주일(7/17) 말씀 -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10)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출 7:1-13)

마음이 완악해진 애굽 왕 바로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임을 너 무나 잘 알면서도, 모세와 아론은 또 다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 내라 (Let My People Go)”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고, 아론의 나이는 83세였는데, 이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출7:6-7)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 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믿음은 행동할 때, 역사한다”는 원리입니다. (마치) 소년 다윗이 물매 돌을 던졌을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삼상17장)... (마치)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던 것 처럼(눅5장)... 그리고 (마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뱅이의 손 을 잡아 일으켰을 때, 앉은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행3장)... 분명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장차) 애굽 땅 에 내려질 10가지 재앙의 서막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선전포고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술객들의 지팡이를 모두 삼키는 장 면(출7:12)은 세상의 그릇된 힘과,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탐욕과, 거짓된 위선을, 단번에 제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드러내는 장면으로서, 이를 통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접점인 ‘믿음’을, 우리 안에 더욱 견고히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 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믿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